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2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유현조, 고지우(15시 기준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KB금융 스타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9월 4일(목) ~ 9월 7일(일) |
| 3 | 장 소 | 블랙스톤 이천 [북 코스(OUT) / 서 코스(IN)]  |
| 4 | 주 최 | KB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722야드(예선), 6,718야드(본선)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유현조, 신다인, 홍정민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김민선7, 이동은고지우, 박지영, 이가영, 김민주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김민솔김시현, 송은아, 서교림, 박민지, 임희정, 이다연, 안송이, 전인지, 박예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[2라운드] 08시 ~ 18시(SBS 지상파 16시-17시)[3라운드] 09시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2R 4언더파 68타,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(70-68) 선두 유현조(디펜딩챔피언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소감?**

어제도 오늘도 보수적인 라운드를 했다. 첫 홀에서 버디가 나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게 플레이 하면서 찬스가 나오면 잡을 생각이었는데 찬스 자체가 많이 안 나왔다. 그래서 전반에는 기다리면서 모든 홀 파세이브 하며 좋은 흐름을 만들려 노력했더니, 후반 첫 3개 홀 연속 버디가 나왔다. 전체적으로 만족한다.

**36홀 동안 딱 하나의 보기를 기록했는데, 보기 상황?**

안타깝게도 보기 딱 하나 마지막 홀에서 나와서 아쉽다. 코스 공략을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갔다. 핀까지 내리막이라 어려웠는데, 오늘 퍼트가 워낙 잘 돼서 파 퍼트 성공을 기대했는데 아쉽게 안 들어갔다.

**모든 홀 티샷 3번으로 했는지?**

작년에는 한 홀 빼고 우드 플레이를 했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드라이버를 많이 쳤다. 드라이버 네 번 정도 친 것 같다. 나머지 홀은 우드와 유틸리티를 섞어가면서 쳤다.

**타이틀 방어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, 이틀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?**

사실 모든 대회 우승을 바라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. 이번 대회도 우승보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받는 관심에 신경쓰기 보다는 내 플레이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.

**남은 라운드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?**

오늘 플레이 했을 때 핀 위치가 어제보다 좀 수월했다고 생각한다. 2라운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, 한 홀 남더라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코스라 단독 선두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.

**잔디의 영향 있나?**

중지로 바뀌고 나서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 하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.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핀 위치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 같다.

**가장 큰 목표?**

목표는 타이틀 방어, 우승이다. 사실 다른 대회들에서도 목표는 우승이었다. 근데 우승, 우승하니까 오히려 날 떠나는 것 같다. 그냥 좀 골프와 밀당을 하면서 기다리려고 한다.

**우승해봤던 코스이기에 자신감이 있지 않은지?**

좋은 기억이 많아 자신 있고, 성적과 별개로 이런 코스를 좋아한다. 그냥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.

**구체적으로 이런 코스란?**

그린 난도가 어려운 코스다. 거리가 많이 나가다 보니 짧은 클럽으로 공격적인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좋아한다.

**◈ 2R 3언더파 69타,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(71-69) 공동 2위 고지우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2>

**소감**

먼저 오랜만에 리더보드 상단에 있어서 기분 좋다. 오늘 아이언 샷이 좋았는데, 특히 방향성이 좋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았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.

**마지막 홀 보기가 아쉬울 것 같은데?**

그렇다. 사실 어제도 마지막 홀 바로 전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해서 오늘은 마지막 홀 2개 홀을 조심하자고 생각했는데, 어김없이 실수가 나와 아쉽다. 하지만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. 9번 홀 세컨드 샷에 친 공이 생각한 것보다 멀리 가서 핀 뒤에 있는 벙커에 빠졌는데, 내리막에 핀 과 벙커 사이 공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.

**세컨드 샷 길었던 것이 플라이어였는지?**

아니다. 뒷바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집중을 너무 과하게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느낌이다. 마지막에 과하게 집중하면서 실수가 나온 것 같다.

**남은 라운드?**

라운드 당 실수가 하나씩 나오긴 했지만 이틀 동안 그래도 잘 했으니 이 좋은 느낌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겠다.